


2차과제 (동사) 의견서

조이름	작품명	연출자이름	작품사진	질문이나 전하고싶은 말
찍어보조	망설이다	유주영		<p>쌍둥이와 함께 하는 촬영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주제도 잘 떠오르고 배우의 고뇌가 잘 보인 영상이었지만 <u>신라면을 바라보는 씬이 다소 길게 느껴졌습니다</u> 망설이다 라는 동사가 비교적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p> <p>저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고민하다'라는 동사를 떠올렸습니다. 추가로 촬영의 측면에서, 1분 4초에 머리 위에서 찍은 구도가 살짝 어색하게 느껴져서 해당 클립은 빼고 바로 1분 6초에 사용한 클립만 등장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라면을 너무 유심히 봐서 조금 이상해보였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영상성분이나 칼로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pov로 영상성분을 보여주거나 대사를 조금 넣어주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어요</p> <p>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작품인 것 같아요. 결국 주인공이 라면을 먹었는지, 아니면 찾아냈는지도 궁금하지만, 사실이 작품의 핵심은 그 결과보다 '과정'의 치열함에 있겠죠? 망설이다 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처음엔 '답답하다' 인가? 하는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촬영, 편집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참다라는 동사를 생각했는데 무계를 측정하면서 다이어트라는 신호를 받는 순간 망설이다라는 동사일 것 같았다.</p>
unfinished pieces	숨기다	경가진		<p>연출은 좋았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는 계속 헷갈렸습니다. 죽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인 것인지 연인과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것인지, 또 꿈 속을 표현하고자 하셨는데, 단순히 노출만으로는 꿈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 다 영상을 보면서 주제는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참신한 이야기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이 아름답고 영상미가 좋았으나,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잘 안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상상하다' 혹은 '포기하다'라는 동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여자(검정색머리) 여자가(갈색머리)를 좋아해 잘 됐을 경우를 상상하다가, 마음을 잡고 포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느껴졌는데 수업시간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해주셔서 저에게는 꽤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모두가 그 의미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숨기다? 라는 것에 가까웠는데, 좋아하는? 혹은 미련이 남은것같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망설이다?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긴 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숨기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변화를 다루려 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작품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았지만, 그 모호함 자체가 '숨기다'와 맞아떨어지는 인간의 본능'을 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숨기다' 라는 동사가 떠오르지 않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미장센은 좋았지만 필터가 조금 든근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덜 전달해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어려웠.</p>
팔색조	올다	허지연		<p>처음에는 주인공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주제가 한숨 쉬다 혹은 짜증내다로 인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마가 왔다 가신 장면에서 추가적으로 정리가 안 됐던 방이 정리가 된 장면도 넣었으면 영상이 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구성이 자연스럽지만 영상의 주제는 확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잘 공감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주는 슬픈 정서는 와닿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진행했던 촬영이었습니다. 처음 제작과 음향을 맡아보았는데 팀원들과 함께 진행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분께서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촬영 중에도 감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전화를 하고 이후 냉장고에서 감정이 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못하셔서 아쉬웠습니 다. 작품을 보면서 엄마라는 주제라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되어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장면과 화면이 하나씩 감정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울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감동뿐만 아니라 미안함과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 다. 이 작품은 화려한 기교나 창의적인 설정에 기대기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의 발걸음과 호흡을 세밀하게 따라가는 연출 덕분에, 극 중 인물의 눈물이 관객 개인의 경험과 맞닿으며 공감을 자아내는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올다라는 동사를 생각했을 때 무슨 것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 터뜨리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 작품도 역시 상황을 점차적으로 더해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는 점이 좋았 다.</p>
상호상조	찾다	현은정		<p>굉장히 단순한 플롯이지만 재미있게 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호상조 팀의 간결한 표현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 다. 명사가 명확하게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주제에 맞는 영상이었지만 단순히 찾기만 하는 영상이라 이야기의 구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 다. 전체적으로 잘 보지만 동사가 명확히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다라는 동사가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 다. 다만, 3분이라는 영상 내내 대사 하나 없이 계속 무언가를 찾는 인물을 보는 것이 약간은 단조롭다는 생각을 했고, 보는 입장에서 주인공이 찾는 물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서 크게 몰입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상 내에서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대화 장면을 통해 주인공이 꼭 해당 물건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등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를 내다?의 동사라고 보았는데 그러기엔 화가 너무 뒤에만 나오는데 아닌가? 찾다와 화내다의 중간 어딘가라고 느껴졌습니다. 동사가 바로 떠올랐지만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 있었습니다. 지난 과제 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았습니 다. 너무 의미없는 "찾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했다. 시나리오에 무언가를 더해 좀 더 상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p>
남정네들	싸우다	박종민		<p>시청할 때 굉장히 심오한 영상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느냐, 혹은 전달이 잘 되었는지를 생각했을 때 아쉬운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험적으로 연출한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 다. 후반부 사운드들 통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공간감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부에 널브러져 있는 확장품과 술병이 조금 인위적으로 느껴져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출하는 방향을 고려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도하신 바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분 37초, 2분 5초에 주인공이 "디너 오셨어요?"라는 대사와 함께 등장하는 부분도 현재 영상은 준비 중인 배우가 한 걸음 걸어 나오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연출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사운드가 너무 작아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생각하여 아쉬웠습니 다. 감정 전달의 주체를 배우가 아닌 '공간감'과 '누앙스'로 설정하신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자칫 모호하게 느껴질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출자께서 의도한 그 '누앙스'를 관객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미장센이나 사운드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 쓴 장치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 다. 해석과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던것같습니 다. 결말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이때 시청한 감정은 정확히 알고 있다. 해설이 필요한 장면이 많았고 "싸우다"라는 동사라고 했을 때 예상 밖인 답이라서 놀라웠다.</p>

조이름	작품명	연출자이름	작품사진	질문이나 전하고싶은 말
S2	축발하다	이시원		<p>동사가 주제인데, 어떤 동사인지 예측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다'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짜증나"를 사용하여, 어떤 다른 동사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다?로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p> <p>음향도 아쉽습니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 따로 BGM 같은게 없어서 음향적으로는 심상하다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약간 욕의 티인 것 같은데, 주인공이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엘리베이터가 주인공이 위치한 층에 이동을 하지 않는데,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내려보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작나라라게 엘리베이터 위에 2층이 떠 있어서.</p> <p>영상의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동사가 무엇인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배우의 연기가 너무 극적이고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1차적으로 조금 애매한 영상 같습니다. 동사도 잘 표현된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상입니다. gv를 할 때 더 찍어놓은 장면이 많았다는 연출님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촬영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됩니다.</p> <p>수업시간에는 시작부분 주인공이 강의실에서 자다 일어나는 장면이 왜 들어있는지 의아했는데 추가버전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분을 맞추기 위해서 잘라내야 했다면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당 강의실 문문을 아예 삭제하거나, 뒷 부분 씬을 아예 하나 삭제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판기 앞의 액션이나, 3분 38초에 주인공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액션이 너무 과해서 어색하게 느껴졌고, 3분 56초에 엘리베이터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부분은 준비했다가 출발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으며 엘리베이터 타이밍 또한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했다면 조금 몰입감 있는 영상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동사를 표현하고자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p> <p>연출이 의도한 바처럼,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공감 많이 되었습니다.</p> <p>작품의 주제가 우리 일상과 가까워서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p> <p>스토리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p> <p>거창한 사건이 아니라라도 작은 일들이 쌓여 폭발하기 직전의 그 미묘한 심리를 아주 잘 포착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리지?' 싶은 순간을 다른 방식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라, 보는 내내 저의 하투를 떠올리며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p> <p>위에서 아래로 찍는 구도는 너무 어색하고 좀 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른 구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p> <p>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다.</p>
세븐틴	기다리다	황정걸		<p>동사가 '기다리다'인데, 영상에서 여주가 직접적으로 '오래 기다렸지'를 말한게 아쉽습니다. 중간중간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앵글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 다음에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영상의 이야기는 명확하지만 동사를 드러내는 장면은 단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p> <p>이 영상을 봤을때 전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고, 어떤 시퀀스를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한계나 어려움보다는 우선 전체적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다면 이정도 퀄리티보다는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p> <p>오디오가 중간에 톱톱 끊기고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려서 완성도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남자주인공이 음료를 가지러 가는데 관객에게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관객은 남자가 왜 나갔는지도 모르고 5초 넘게 빈 화면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기분과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료 나왔습니다" 등의 대사를 추가하거나 남자가 나가는 순간 화면을 끊고 다른 각도에서 음료를 가져 오는 남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관객은 여친구를 기다리는 남자를 지켜볼 뿐, 기다리는 남자에게 이입을 하거나, 영상에 몰입을 하는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p> <p>연출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보았습니다! 다만, 사운드와 조금 신경쓰였었던 것 같습니다.!</p> <p>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기다리다' 그 자체를 포착하려는 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데이트 전의 짧은 시간 속에 담긴 미묘한 심리를 담백하면서도 밀도 있게 그려낸 점이 인상적입니다.</p> <p>주제가 명확하고 의도가 좋지만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구도를 잡지 않고 한다면 더... 더욱더 과제를 신중하게 임했다면 좋겠습니다.</p>
periwinkle	듣다	김서현		<p>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라서 좋았고, 덕분에 좋은 노래 하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p> <p>듣다 동사와 잘 어울리게 연출을 한 것 같고, 어떤 동사인지 바로 해석이 되어 좋았습니다</p> <p>영상도 통해 주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 존재하는 연출이 자연스러웠습니다</p> <p>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아서 잘 봤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p> <p>헤드셋을 끼기 전후로 헤드셋 밖의 소리가 소음(듣기 싫은 소리)에서 자연의 소리(듣기 좋은 소리)로 바뀌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내내 다른 방식으로 주인공이 소리를 듣는 걸 표현함으로써, '듣다'라는 동사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p> <p>매치컷이 저의 취향이었습니다. ㅎㅎ 색깔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듣는 동사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소리가 인물의 내면에 쌓여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포착하려 한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p> <p>왜 인물이 갑자기 노래를 듣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출님의 연출의도를 듣고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p>완성도가 높고 편집, 촬영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았습니다.</p> <p>단순히 "듣다"라는 동사를 넘어 상황을 추가하여 촬영을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p>
마감조	자다	김재연		<p>동사가 이해가 잘 되고 좋습니다. 다만, 영상을 핸드헬드로 찍다보니 화면이 너무 흔들려, 시청할 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p> <p>주제는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배우의 감정은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p> <p>해당 영상을 보면 저는 "버티다"라는 동사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논의했던 것처럼, 영상 전반에 소음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주인공을 길게 보여주어서 표현하고자 했던 동사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잠드는 주인공이 아닌 잠에 들지 못하는 주인공, 잠에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을 통해 '잠들다'라는 동사를 강조한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p> <p>하이퍼 리얼리즘이 이런건가 싶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공감할만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데마이를 길고 짙은 샷도 좋았습니다!</p> <p>소재가 흥미로웠고, 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라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p> <p>단순히 조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날 밤 잠 못 이루던 과정을 함께 보여준 덕분에 주인공의 피로감에 더 깊이 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장면이 있었기에 학교에서 결국 잠에 빠져드는 마지막 순간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p> <p>대사가 너무 부족하여 잠들었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제부터 느낀것은 이 조의 작품들은 완성도가 매우 높고 영상미가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연출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보기 편한 작품이었습니다.</p> <p>처음에는 버티다라는 동사인줄 알았다. 왜냐하면 연필을 힘 주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찍어 주인공이 자면 안되는 상황인줄 알았다.</p>
QAS	Practice	방형권		<p>유쾌하게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정말 재밌었습니다!</p> <p>영상은 되게 재밌게 봤고, 코믹하게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보면서 다른 분들처럼 생겼던 공금증인데, 왜 화장실인지, 화장실에서 갑자기 침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화장실에 의자가 왜 있는지? 이것이 주인공의 상상이라면,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의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은 아닌지?</p> <p>진짜 웃겨서 좋았어요.</p> <p>영상의 흐름도 좋고 주제도 명확하지만 중간 부분 이야기 구성이 부자연스러운게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출이라 잘 봤습니다!</p> <p>코미디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매우 재밌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실패하다", "망설이다", "망하다", "고민하다" 등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동사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하지만 그 실패의 과정에서 그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실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겠지만, 그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작성해주셨는데, 남자 주인공이 무엇을 배운 건지, 어떤 성장을 했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실패하다'인 것인지 'practice'인 것인지 궁금합니다!</p> <p>유치하지만 좋았습니다!</p> <p>내용이 재미있어요.</p> <p>단순히 승리의 쾌감을 보여주는 영화보다, 실패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워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p> <p>준비하다라는 동사를 재밌게 풀어내서 흥미롭게 시청했습니다. 주인공이 언제 고객을 할지 마음졸이며 보는 재미도 있었기에 연출적인 부분은 가장 좋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필요없다고 느꼈습니다.</p> <p>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때 카메라 이동이 약간 어색했었다.</p>

조이름	작품명	연출자이름	작품사진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
S2	집다	강아란		<p>영상 중간중간에 여자가 종이를 접는 연출이 집다의 이중적인 의미를 잘 나타낸 것 같아 좋았습니다 주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표현하였지만 이야기의 구성이 다소 짧게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아웃풋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p> <p>영상을 본 후 '집다'라는 동사가 바로 떠올랐고, 마음을 집다 그리고 종이를 집다라는 동사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것이 매우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40초 쯤 남자와 여자가 팔을 맞대고 걷는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촬영 구도나 연출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57초에 팔꿈치를 보여주는 장면 또한 연기가 어색하게 느껴져, 차라리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라인은 좋으나 이런 부분이 몰입을 방해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p> <p>좋았습니다! 화면과 색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보기 좋았습니다.</p> <p>사랑이라는 익숙한 감정을 '집다'라는 의외의 동사로 풀이하여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p> <p>집다 라는 동사를 종이를 접는걸로 표현하고 마음을 접는걸로 표현하여 두면 '남은것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 그리고 저희 필색조의 1주차 과제 배우분들과 똑같은데 우연이라면 정말 신기한것같습니 ㅎㅎ.</p> <p>"집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선택한 부분이 인상 깊었고 처음에 주인공이 종이를 접으면서 하는 장면에 그종이가 어떠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여 인상이 깊었다.</p>
찍어보조	자다	김다혜		<p>영상의 구도가 다양하고 이야기도 자연스럽지만 다양한 동사가 생각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연출 내용보다 촬영 자체에 신경쓰신 느낌이 들어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사 파악은 그나마 수월해서 잘 봤습니다.</p> <p>꿈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음산한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해가 되었습니다! 편 집이나 촬영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높고 편집이 깔끔해서 줄임감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자다'라는 평범한 동사를 사투와 붕괴의 과정으로 해석한 연출력이 돋보였으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낄만한 그 서늘한 피로감을 완성도 있게 담아낸거 같습니다.</p> <p>전제가 조금은 복잡했던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이 너무 많았고 다른분들이 1인칭 시점에서 비틀거리는? 연출이 좋았다고 해서 언급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부분은 뉘는것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자다 라는 동사를 바로 이해할수 있었고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어서 재밌었던 작품 같습니다.</p> <p>어디서 부터 끝인지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상옆에 있는 커피피들이 어떤 장면들은 있었는데 어떤 장면 속에서는 없었다. 이것은 또한 꿈이라는 점을 암시하는것인가요?</p>
남정네들	감다	허민		<p>우선 소재가 굉장히 독특했고, 수업 시간에 봤던 것보다 카페에 올라온 영상이 보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주인공의 관계가 친구라는 점이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p> <p>마지막에 좀비를 변한장면이 너무 어설프게 나왔다, 차라리 저 장면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p> <p>처리가 다소 적절하지 않아 웃음이 나오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몇몇 디테일과 완성도 면에서는 이 작품이 충분히 고만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별 과제로 좀비 영화를 선택한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기묘하고 독특한 요소들을 보여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p> <p>미슬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p> <p>좀비영화를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게 느껴졌고, 그 노력 덕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상을 시청한 후 2차과제의 주제가 '동사'라는 것을 잊을 만큼, '좀비영화'라고만 느껴졌던 것 같고, 어떤 동사인지 추측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지막에 <u>봉대를 감고 눈을 감고 영상을 끝냈다</u>면 주제가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p> <p>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주제 선택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p> <p>정말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아요.</p> <p>평범한 일상에서 봉대를 감을 때와 좀비에게 물려 광적으로 감을 때의 '색감' 차이를 어떻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p> <p>이런 장르물을 선택한것이 용감했지만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이 작품을 보는 순간 무슨 동사인지 전혀 감이 잡지 못했다. 그리고 좀비영화를 찍는다는게 놀라웠다.</p>